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선사의 삶과 수행

진 광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본공선사의 생애
3. 본공선사의 수행생활
 - 1) 만공선사를 친견하다
 - 2) 수선안거의 수행생활
4. 수행의 특징
 - 1) 철저한 신심
 - 2) 참선과 기도의 일치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집필 목적은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 (1907~1965) 선사의 생애와 수행을 통해서 한국 비구니승가의 수행전통과 당시의 수행 일면을 살피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비구니 승가는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던 때부터 시작되어 1,6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수행전통을 지니고 있다. 비구니승가의 전통 또한 비구들과 기본적으로는 통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비구니라는 특성 때문에 비구들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입적



본공 선사 진영

하신 스님의 경우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본래 면모를 자세히 기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구니선사들의 경우는 비구선사들에 비해서 더욱 자료가 부족하다. 단지 구전

되어 오는 말씀과 현재 승가의 모습에서 지나간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앞서 살다 가신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추적하여 기록한 자료들과 관련 문헌이 늘어나고 있어, 수행의 한 부분이나마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우리 후학들이 반드시 연구 선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선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모범 삼아 현재 우리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비구니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본공 선사에 관한 자료는 당대 선지식들과의 서신과 『깨달음의 꽃』¹⁾을 주로 참고하고, 그 밖에 스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후학들, 본공 스님과 관련 있는 스님들이 기억해 낸 증언에 의존하고자 한다. 특히 본공 스님의 속가 종질녀이자 상좌인 대구 서봉사의 경희 스님의 증언을 주로 참고하여 스님의 삶과 수행을 살펴본다.

2. 본공 선사의 생애

본공 스님은 1907년 음력 4월 1일에 지금은 북녘 땅이 되어 있는 곳인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272번지의 부유하고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스님은 아버지 달성 서(徐)씨 재현(載賢)과 어

1) 하춘생, 「시대의 참 禪客」, 『깨달음의 꽃』, 도서출판 여래, 1998, 89~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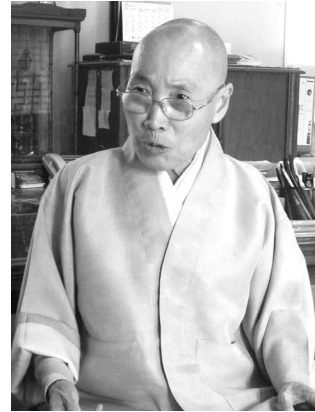
머니 변(邊)보리성 사이 5남2녀 중 차녀로서, 속명은 봉(鳳)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인품이 넉넉하고 씩씩하여 장부의 성격을 타고 났으며, 불교 집안의 정서 속에서 선근을 키우며 자랐다. 스님은 19세(1925년)에 금강산 유점사 득도암에서 박사득(朴四得) 스님(1862~1940)의 손상좌인 상운(祥雲) 스님(1879~1943)²⁾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니계를 수지하였다. 이때 받은 법명이 '계명(戒明)'이었다. 당시 은사스님이던 상운 스님도 삭발한 지 불과 7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고 한다.³⁾ 한편 본공 스님의 상노스님 되시는 사득 스님은 4) 속가에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금강산의 비구니재벌로 불릴 만큼 재력이 있었는데 아낌없이 주위에 나누어 주고 불사에 보시하여 주변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김윤호 스님(1907~1995)의 은사였던 홍상근 스님(1872~1951)과 박사득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선원에서 서진하(徐震霞) 스님에게서 수계하였으며, 본공 스님과 윤호 스님은 동선(東宣) 스님에게서 같이 수계하였다. 후에도 두 분은 오랫동안 좋은 도반으로서⁵⁾ 서로 수행탁마하였다.

스님은 23세(1929년)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조실이신 동선(東宣)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이후 만공 스님이 계시던 수덕사 건성암에서 6년간 용맹정진하였다. 그 후 대승사 윤필암에서 입승으로 3년간의 안거를 마쳤다. 31세(1937년)에 윤필암에서 하안거를 마친 후 만공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일대를 유행하고 오대산에서 한암 스님을 친견하였다. 한암 스님의 가르

침에 따라 오대산 지장암에 선원을 개설하고(1937년) 여러 해 동안 안거하였다. 42세(1948년)에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원을 개설하고 입승으로 5년 동안 수행정진하였다. 47세(1953년)에 범어사 대성암에서 3년 동안 안

거하였고, 50세(1956년)에는 통도사 내원사에서 3년간의 안거를 마쳤다. 53세(1959년)에 설석우 스님이 계시던 남해 도성암에서 1년간 안거·정진했으며, 54세(1960년) 묘관음사에서 2년간, 56세(1962년) 동화사 부도암에서 안거를 하셨다.

이렇듯 수많은 선원에서 수행정진하면서 늘 입승의 소임을 맡아 대중스님들을 이끌었다. 그러다 1965년 음력 2월 27일 세수 59세, 법랍 40세로 대구 기린산 서봉사에서 입적하셨다. 상좌로는 법열(法悅), 선행(善行), 경희(慶喜), 도안(道眼), 유심(唯心), 무주(無住), 지홍(知弘), 자호 스님 등이 계시지만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경희⁶⁾ 스님만이 생존해 계신다. 손상좌로는 명성(明星), 명원(明圓), 명길(明吉), 명호(明昊), 명우(明又), 명순(明淳), 명진(明進), 명권(明權) 스님 등 본공 스님 문하(봉래문중)에 약 200여 명의 스님들이 있다.



은사 본공 스님을 회상하는
대구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상좌)

2) 1929년 萬性 스님(1870~1935)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금강산 홍수암, 정혜사, 건성암 등에서 수행하였다.

3) 경희 스님(대구 서봉사 주지스님)의 증언.

4) 1887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世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친가의 재산을 금강산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마하연, 득도암, 홍수암, 신계사에 헌납하고 득도암, 홍수암을 창건하였다. 박사득 스님의 공덕비는 서봉사 경희 스님께서 금강산 신계사에 가셨을 때 일주문 곁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사득 스님은 원래 유점사 스님으로 신계사 불사에 많은 시주를 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유점사에서 열반계를 모으고 금강산의 여러 사찰의 불사에 보시를 한 기록이 「金剛山楡岾寺涅槃集契案序」에 나오고 있다.

5) 진우(서울 청룡사 주지스님) 스님의 증언.

6) 제정 스님, 「금강산에서 띄우는 편지 - 유점사 비구니스님 문중」, 『불교신문』, 2005. 9. 7, “경희 스님의 은사는 본공 스님이고, 본공 스님의 노스님이 사득 스님이다. 본공 스님과 경희 스님은 각각 강원도 고성군 덕산면과 외금강면 출신이다. 지금은 복녘 땅이 되어 있는 곳이다. 모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본공 스님은 경희 스님의 친이모가 된다. 경희 스님은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온정리 온천에 다니던 일들을 생생히

3. 본공 선사 수행생활

1) 만공 선사를 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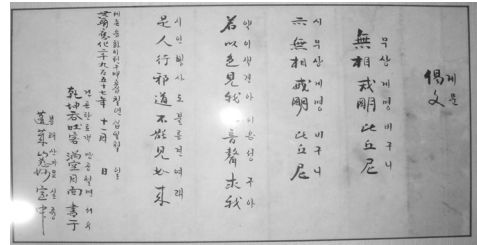
스님은 23세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나서 그 해 가을, 금강산 마하연선원에서 만공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진발심을 하게 되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희열에 찬 스님은 만공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고자 은사인 상운 스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⁷⁾ 그러나 일대사 인연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스님은 은사스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을 뒤로 한 채 만공 스님이 계시던 덕수산 수덕사로 발길을 옮겼다. 만공 스님은 기꺼이 스님을 제접하였다.

수덕사 견성암에서⁸⁾ 스님은 한동안 공양주 등의 소임을 살면서 부처님의 설산고행을 본받아 6년 동안 수행정진하였다. 이렇게 6년간 용맹정진 화두참구와 끊임없는 수행의 노력으로 29세(1935년)에 드디어 한 경지를 터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다.

어찌 불법에 비구, 비구니가 있으며
세간과 출세간이 있겠는가.
어찌하여 북(北)이 있고 남(南)이 있으며
어찌 너와 내가 있을 수 있으리오.

스님의 나이 24세, 1930년 11월에는 만공 스님이

봉래산에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어 계문(偈文)을 보내기도 하셨다.



偈文

無相戒明比丘尼, 示無相戒明比丘尼,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七年十一月日, 乾坤吞吐客 滿空月面書于, 蓬萊山慈妙室中.

「계문」

무상계명 비구니
무상계명 비구니에게 보이다
만일 물질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한다면
그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니,
능히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⁹⁾

세존 응화 2957년(1930) 11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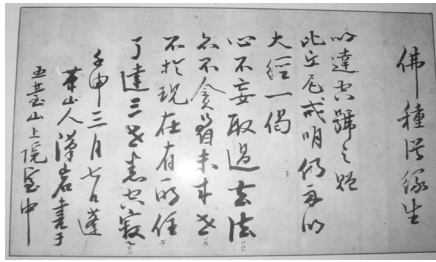
하늘과 땅을 삼키고 뱉는 나그네 만공월면 쓰다.
봉래산 자묘실에서.

기억하셨다. 할아버지 김중하 거사가 건립한 고성 보통학교에 다니던 시절 신계사까지 소풍을 가기도 했다. 한번은 해금강으로 소풍을 갔다. 해금강 바위 속에서 미륵부처님이 나오시면 새 세상이 된다고 하신 담임 이현규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울었다. 암울하던 일제 때 어린이들에게 가까지도 미륵부처님은 희망이었다. 할아버지는 통천군수를 지내셨으며 효봉 선사와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효봉 선사는 신계암 상운암과 토굴에서 정진하고 계셨으므로 김중하 거사는 효봉 선사의 말소된 호적을 복구시켜 드리기도 하였다. 훗날 경희 스님이 효봉 종정스님을 친견했을 때 이 사연을 말씀드리니, 선사께서는 매우 반가워하셨다고 한다. 경희 스님은 열다섯 살이 되던 해방 이듬해(1946년) 남쪽으로 내려와 출가하게 되었다. 새내기 스님 때 경희 스님은 한암 선사를 찾아뵙고 법문을 들었다. 선사께서는 ‘麻三斤’ 화두를 내리셨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경희 스님은 지금까지 참선과 간경, 기도 수행생활로 한평생을 일관해 오셨다. 또한 현재 봉래문중의 어른으로서 대구 서봉사에 주지로 주석하고 계신다. 장부의 기상으로 가람수호와 대중포교, 그리고 화성양로원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은 무주상의 선행을 행하시고, 선학원의 이사를 역임하시는 등 중무행정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다.”

7) 경희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은사스님은 가사장삼을 뺏고서 못 가게 하였다고 한다.

8) 견성암은 鏡虛惺牛(1849~1912) 스님의 선법을 이은 滿空月面(1871~1946) 스님의 영향으로 1916년 1월 최초로 비구니선원으로 개설되었다.

9) 『金剛般若波羅密經』(『大正新修大藏經』 권8, 752上17) 참조.



佛種從緣生

以達空號之贈, 比丘尼戒明仍示以大經一偈, 心不妄取過去法, 亦不貪着未來世, 不於現在有所住, 了達三世悉空寂.

壬申三月七日, 蓬萊山人漢岩書于, 五臺山上院室中.

아래 편지는 26세(1932년) 3월 7일 오대산 상원사의 한암 스님께서 보낸 법서이다.

「부처의 종자는 인연을 따라서 난다」

달공으로써 호를 지어 주다.

비구니 계명에게

대경의 한 계승으로써 이에 보여 준다.

마음으로 과거법을 헛되이 잡으려 말고

또한 미래세도 탐착하지 말며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삼세가 다 공작함을 요달하리라.

임오 3월 7일 봉래산 한암 쓰다.

오대산 상원실에서

당시 선지식들께서 보내신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의 수행이 범상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한암 스님으로부터는 '달공(達空)'이란 호를 받았다. 29세(1935년)에 스님은 마침내 만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받고, '본공'이라는 법호를 받게 되었다. 만공 스님은 법호를 내리면서 2~3년 정도 문경 사불산 윤필암선원¹⁰⁾에서 정진하고 오라며 스님을 다시 입승으로 보냈다. 여기서 스님은 2년간의 수선안거를 마치고 만행의 길을 떠났다.

다음 계문은 만공 스님께서 법호와 함께 내린 법서로 「달마대사사행론(達磨大師四行論)」을 잘 살펴 간직하라는 내용이다.

본공 비구니에게 내리노라¹¹⁾

달마대사의 사행론

한날 물건도 지음 없음을 이름하되

도를 짓는다 하며,

한날 물건도 봄이 없음을 이름하되

도를 본다 하고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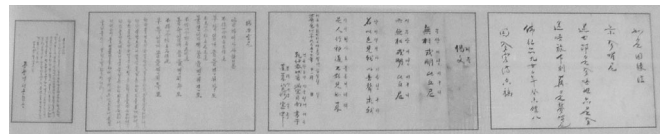
한날 물건도 닦음 없음을 이름하되

도를 닦는다 하며,

한날 물건도 얻을 없음을 이름하되

도를 얻는다 하느니라.¹²⁾

이 네 가지를 경솔하게 살펴 얻으면 헛수고 '도로(徒勞)'며 큰 병을 얻을지니, 살피고 살필지이다.



대덕스님들로 부터 받은 「달마대사사행론」 및 각종 계문과 찬설 등

‘한 물건도 지을 것이 없고, 볼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것이 바로 도이다.’ 이것은 스님의 법호인 본공(本空), 즉 ‘본래 공한 그 자리’가 도(道)임을 일러 주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10) 대승사 윤필암은 1931년에 처음으로 비구니선원으로 개설되었다.

11) 만공 스님이 1935년 '本空'이라는 법호와 함께 내린 법서인 「達磨四行論」은 현재 대구 기린산 서불사에 봉안되어 있다.

12) 「達磨大師四行論, 不作一物名爲作道, 不見一物名爲見道, 不修一物名爲修道, 不得一物名爲得道」 경허성우 편, 「달마대사사행론」 목판본, 『선문촬요』(이철교 옮김, 민족사, 1999), 80쪽 참조.